



2025 중추절 감사예배

오직 주님

칠년을 하루같이



명성교회

오셔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견디기 힘든 질병으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채워짐이 아니라 부족함이 복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은혜, 다른 하나는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입니다.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장 부족하고 열악한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뭄을 통해 열매를 더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바울이 약함과 부족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 부족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인도자

찬송 302, 370, 419, 559장 (중택1)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2025
중추절
감사예배

2025
중추절
감사예배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순서

목 도 마가복음 12:29-31 (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다 같이

찬 송 270, 301, 405장 (중 택1) ----- 다 같이

성서교육 ----- 다 같이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회 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인도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회 중: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회 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같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 멘-

기 도 -----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2:6-10 ----- 인 도 자

-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말 씬 부족하지만 괜찮아 ----- 인 도 자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쉽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채우기 전에 먼저 영혼의 건강함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부족하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족함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풍요로움만을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